

대한민국과 '회복탄력성'

의정대상



채은지
광주시의원

2025년을 맞이한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의 한가운데에 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남긴 충격과 현직 대통령 구속 기소라는 정치적 파장은 새해의 설렘을 앗아가고, 극복해야 할 깊은 난관만을 남겼다.

이러한 국가적 재난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비극과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회복탄력성'이다. 이는 실패와 시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며,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 더 큰 성장을 이뤄내는 힘이다. 다행히 대한민국 국민들의 DNA에는 이 회복탄력성이 깊이 새겨져 있다. 우리는 전쟁과 독재, 경제-재난 위기를 겪으면서도 좌절하는 대신 새로운 길을 개척해왔다.

1950년 6·25전쟁으로 대한민국은 초토화되었다. 국토의 80%가 파괴되었고, 경제적 기반은 무너졌다. 전쟁이 끝난 후 한국은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지만,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전쟁의 상흔을 딛고 한강의 기적을 이루며 산업

화를 달성했고, 이후 반도체, 자동차, 조선업을 기반으로 세계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 재건과 성장의 기회를 찾아낸 것이다.

정치적으로도 대한민국은 굴곡진 역사를 지나왔다. 군사독재와 민주주의의 억압 속에서도 국민들은 결코 주저앉지 않았다. 1960년 4·19 혁명, 1980년 5·18 민주화운동, 1987년 6월 항쟁을 거치며 독재를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쟁취했다. 특히 2016년 촛불혁명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을 보여주는 결정적 사례였다.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 퇴진을 이끌어냈고, 법치주의를 지키면서 민주주의를 한 단계 발전시켰다. 위기는 국민 주권의 힘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촛불혁명의 정신은 오늘날 내란수괴의 구속 기소를 만들어 냈다.

경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은 수많은 어려움에 직면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는 대한민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기업들이 도산하고,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해 국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이를 계기로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을 이루었다. 재벌 개혁과 금융 시스템의 선진화가 진행되었고, 무엇보다 국민들은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국가 경제 회복에 자발적으로 나섰다. 이후 IT·벤처 산업이 성장하며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 강한

경쟁력을 갖추게 되었다. 경제 위기를 단순히 극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환한 대표적 사례다.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큰 혼란에 빠뜨렸을 때도, 대한민국은 달랐다. 빠른 진단키트 개발과 드라이브 스루 검사소 운영,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학조사 시스템 등을 통해 효과적인 방역 모델을 구축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도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협력하며 공동체 의식을 발휘했고, 대한민국의 대응은 국제사회에서 주목을 받았다. 또한 이 위기를 계기로 디지털 경제가 더욱 성장했고, IT, 플랫폼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했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맞닥뜨릴 때마다 더 강한 국가로 거듭나 여기까지 왔다. 전쟁 속에서 산업화를 이루었고, 독재의 억압을 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으며, 경제 위기와 팬데믹을 극복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했다. 위기는 대한민국에게 있어 단순한 시련이 아니라, 더 높은 도약을 위한 기회였다. 필자는 근거 없는 희망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루어낸 역사라는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확신한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회복탄력성은 지속될 것이다. 치유와 회복을 넘어, 다시 한 번 성장의 역사를 써내려갈 대한민국의 2025년을 기대해 보자.

社說

여야 갈등 멈추고 '민생정치' 전환해야

설 민심 "한숨 뿐"

6일간의 긴 설 연휴 동안 지역민들의 마음은 무거웠다. 설 당일 무안국제공항에서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에서 희생자들을 기리는 합동 차례가 열렸다. 참사 발생한 달째, 상흔이 채 가시기도 전 첫 명절을 맞은 유족들의 슬픔은 여전했다. 차례를 지내는 내내 분향소에서는 통곡과 흐느끼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합동차례에 앞선 지난 27일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항공철도조사위원회(항철위) 보고서에는 공항 활주로부터 2km 떨어진 상공에서 사고기의 블랙박스 기록이 멈췄다는 결과가 담겼다. 100%에 해당하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가족들은 상당한 시간 동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정치권을 향한 성난 민심은 명절 내내 들끓었고, 경기 불황에 한숨소리는 더욱 깊어졌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을 발동해 내란죄 혐의를 자초한 윤석열 대통령 조기 파면과 조기대선을 발상머리 화두로 올렸다. 예정된 탄핵 심판은 물론 조기대선도 언급됐다. 국정

리더십 공백 상태에서 정치권마저 정쟁에 매몰되고 '대선 블랙홀'로 빠져들면서 여야 간의 갈등은 더욱 거세질 것이라 걱정부터 앞선다. 이런 이유로 설 민심에서 드러난 정치권 피로도는 한숨을 넘어 분노에 가깝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경제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국정 마비 상황에서 정치권이라도 중심을 잡아 국정을 뒷받침하고 경제도 챙겨야 하지만 그러기는커녕 연일 진영 대결을 부추기느라 눈코 뜰 새 없다. 민생 역시 외면받고 있다. 설 직전 여야 지도부는 '민생 회복' '내수 경기 활성화'에, '회복과 성장' '실용주의 정책'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말뿐인 정책이 실행될지 지역민 누구도 믿지 못하는 게 이번 설 민심이다. 정치권이 민심을 다잡기 위해서는 내란 수괴에 대한 심판은 사법부에 맡기고 하루빨리 '민생정치'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물가 상승과 소비 절벽으로 도탄에 빠진 민생경제부터 챙기는 게 우선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치권은 당장 설 민심을 받들고 대립 정치를 끊어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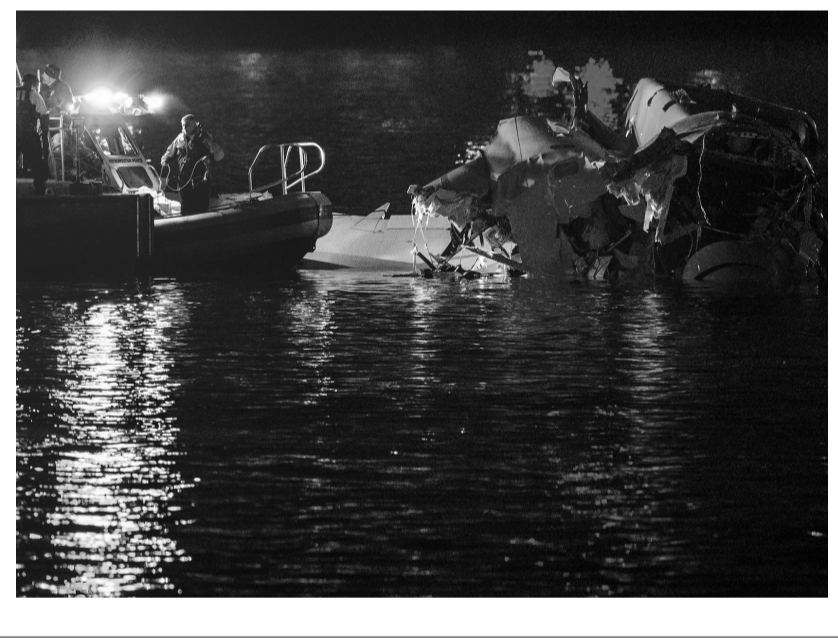
전남 메가 이벤트로 관광산업 생기찾길

미식박람회 등 잇따라

제주항공 여객기 대참사로 직격탄을 맞은 광주·전남 관광업계의 상황이 암울하다. 11월~3월 사이 겨울 성수기를 맞은 관광업계가 항공 참사 쇼크로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큰 타격이 예상된다. 실제 전남도가 지난 6일 임시로 조사한 '시군별 여행사 피해 현황'에 따르면 취소 건이 발생한 아웃바운드(내국인의 해외여행) 여행사는 모두 149개로 총 927건(8167명)의 예약 중 96.1%인 891건(7703명)이 취소됐다. 광주시는 지난 9일 지역 내 103개 여행사에서 1253건의 예약이 취소되고 1만 6086명의 관광객이 여행을 가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공 참사로 인한 최근 한 달간 피해액만 300억 원에 달하면서 여행업 종사자 1000여 명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한다. 앞으로도 암담하다. 성수기를 놓친 관광업계는 적어도 지역 관광산업이 오는 5월까지 정상이 되기를 바라는 입장이다. 정치권과 지역사회에서는 지역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광진흥개

발기금 상환 1년 유예 등 지원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다행히도 올해 전남 곳곳에서는 메가이벤트가 줄줄이 열린다고 한다. 침체에 빠진 지역 관광업계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전국 최대 규모의 생활체육대회인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이 4월 24~27일 전남에서 펼쳐진다. 9월 19~21일 울돌목 일원에서 명량대첩축제가 열린다. 10월 한달간 목포일원에서 남도미식 세계화를 위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마련된다. 지자체는 축제와 국제 행사를 '우리만의 리그'로 끝내서는 안된다. 관광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025년 메가 이벤트를 통해 맛과 멋, 흥이 넘치는 남도의 무궁무진한 매력을 선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아주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면 지역 경제뿐 아니라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코로나19에 이어 항공 참사 쇼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관광업계가 올해 다시 생기를 찾길 기원해 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9일(현지시간) 오후 아메리칸항공 산하 PSA항공의 소형 여객기가 워싱턴 DC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착륙하려고 접근하던 중 미 육군의 블랙호크 헬기와 부딪히고 인근 포토맥강에 추락했다. 비상 대응 부대가 현장에서 사고 비행기 잔해를 수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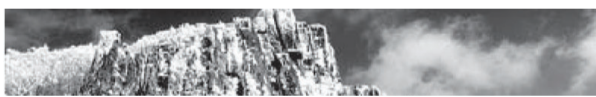
AFP=연합뉴스

서석대

정치학 용어에 '장터 효과'라는 말이 있다.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터에서 오르내리는 애깃거리가 만들어내는 여론의 흐름을 이르는 말이다. '설날 밥상'도 민심이 교류하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많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라는 점에서 '장터 효과'의 전형이다. 전국적으로 1000만 명 이상의 귀성객이 한꺼번에 몰리면 지역과 세대, 성별, 직업을 초월한 거대한 여론이 만들어진다. 다가올 1년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치부터 경제까지 우리 사회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는 이른바 '명절 민심(民心)'이다.

이번 설에도 명절 민심은 어김없이 만 들어졌다. 정치와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많은 소상공인과 서민은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하소연했고 탄핵 정국 이후 정치인들의 욕심이 만들어낸 혼돈도 이번 '설날 밥상'의 화두였다. 민생은 뒷전으로 돌리고 허구한 날 싸움질만 일삼는 정치권에 대한 분노도 여기 저기서 터져 나왔다. 무능과 무책임, 무대책으로 일관하는 여당과 야당에 대한 질타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유난히 많이 들려왔다.

1922년 사상이 월터 리프먼은 저서 '여론'을 통해 여론



을 '탈진실(post-truth)'이라고 정의했다. 여론을 형성할 때 객관적인 사실보다 개인적인 신념과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지금도 여론은 비합리적인 의견을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가짜뉴스가 난무하고 거짓 정보가 홍수처럼 범람하는 것도 '탈진실'의 현실이다. 악성 루머나 왜곡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지는 현상을 의미하는 인포데믹스(infodemics)는 그 어떤 전염병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다. 설 명절이 지난 이후 이름 있는 정치인들이 너도 나도 여론을 핑계 삼아 자신이 들은 설 민심을 전하고 있다. 그렇다고 그들의 여론이 지역민 전체의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100년 전 월터 리프먼은 '여론은 합리적인 의견의 합이 아니라 편협한 해석의 집합'이라고 했다. 누구나 자신이 듣고 싶고, 자신이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자신이 원하는 해석으로 귀결시킨다는 얘기가. 자신이 선별적으로 접한 기성 언론이나 각종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만든 자신의 의견이 진실일 수 없다. 복잡한 4차산업혁명의 시대, 어찌 사라지는 것이 진실뿐 이라면 여론마저 의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극한 대립과 자기중심주의가 안타깝다.

이용환 논설실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